

“자금 뿌리기식 창업지원 NO 다방면 스케일업 정책 펼쳐야”

서울연구 창업지원정책 보고서
자금·공간제공 이상 지원 필요
창업플레이어와 협업 등 조언

서울시가 창업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스케일업(고성장기업)으로 넓히려 면 자금과 공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창업 초기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서울시 창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리포트에서 “스케일업 기업은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스타트업보다 더 크다”라며 “창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업 정책과 더불어 시장에 뛰어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소재 스케일업 기업 수는 4418개로, 스타트업 15만 7741개의 약 3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스케일업이 47명으로 스타트업 8명보다 6배가량 많아 스케일업 기업의 고용 효

과가 스타트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과 수출액도 스케일업이 스타트업을 압도했다.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스케일업이 363억6000만원으로, 스타트업 14억5800만원과 비교해 25배 정도 많았다. 수출액은 2018년 기준 스케일업이 222만7000달러로 스타트업 88만2000달러의 2.5배였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은 “스케일업은 뿌리기식 자금 지원, 단순 공간 제공 이상을 요구한다”며 “스타트업이 죽음의 골짜기, 다윈의 바다를 건너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창업플레이어와 협업해 기업 운영, 투자 유치, 시장 진출,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창업 단계보다 높은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서울시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전략적으로 선별하고 지원할 창업보육기관이 부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44곳 가운데 창업상담, 인적네트워크 구축,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창업정보 교류공간(창업카페·꿈터) 10곳과 시제품 제작소 7곳을 제외한 창업보육기관 27곳의 지원대상을 살펴봤더니 스케일업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면 자격증이 아닌 창업 경험이 있는 경험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시설마다 보육 전문 인력인 매니저를 고용해 상품·경영기술 지원, 행정 등 컨설팅, 멘토링 사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특성이 다른 스케일업 기업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의 스케일업 기능 강화 ▲서울형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스케일업 정책 지원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창업지원시설을 재편해 스케일업을 전담 지원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 제고, 성공스토리 개발 및 전파·공유를 위해 민간의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서울시가 지원, 확대·개편해 서울형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시 경제정책실 내 서울시-국가별 주한대사관과의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을 해외에 적극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스케일업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저무는 가을

비가 내린 9일 오전 서울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이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어르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1인당 3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장기요양요원이 휴가, 교육으로 부재 중일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지기관(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신설해 1인당 30만원(연

1회)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전담인력을 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

중장년 여성근로자위주의 장기요양요원 일자리에 2030세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미래가치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SH공사, 임직원 투기·부패 원천차단 ‘선포’

서울시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
조직쇄신, 새 주택모델 도입 등
투기시 벌금, 부당이익의 5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차지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시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다.

먼저 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시는 그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 산재된 주거복지 관련 서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스를 이곳에 통합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까지 시민 누구나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시는 SH공사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

다. SH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 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 의무화한다.

시는 SH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실시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정보공개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9일 환경부, 구청장협의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잇그린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환경부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와 관련 정책

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시민 홍보에 협력한다.

구청장협의회는 각 자치구 내 배달음식점과 주민들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다회용기 사용 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6 | 해질 / 17:25

11월 10일 (수)
음력 : 10월 6일

수도권 날씨
1 ~ 7 °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0/6, 동두천 0/6, 가평 0/6, 파주 -1/7, 서울 1/7, 양평 1/7, 수원 3/7, 용인 3/7, 인천 4/8, 평택 1/8, 백령도 6/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가**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바이든 지지율 48%...중간선거 ‘빨간불’ /사진 뉴스1
▲6중전화 개막 중, 시진핑 찬가 일색... ‘3대 지도자’ 추대 시동

▲일본, 15개월 만에 처음 코로나 사망자 없어
▲말레이-싱가포르, 백신접종 완료자에 무격리 입국 상호 허용



▲대만에 수출한 한국산 전동차 천장서 빛물 ‘주룩룩’ /사진 뉴스1
▲북한, 유엔총회 무대서 또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 주장